

인랜드교협, 팬데믹 이후 첫 성탄 연합 찬양제

갯스윌교회, 남가주헬로십교회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 미주
새한교회, 연약교회 등 참여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김성계 목사)는 지난 12월 13일(토) 오후 4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성탄 찬양제를 재개했다. 이번 성탄 찬양제는 오랜만에 열리는 지역 연합 행사로, 인랜드 지역 여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예배는 김성계 목사(남가주 헬로십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예배는 ‘천사 찬송하기를’와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윤창률 목사(인랜드 ANC온누리교회)가 기도했다. 이어 강현규 목사(갯스윌연합교회)가 ‘왜 크리스마스인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강牧사는 “성탄은 하나님



인랜드 지역 한인 교회들이 성탄 연합 찬양제를 개최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했다. ©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

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뻐해야 할 날”이라며,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강조했다.

예배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후 이희철 목사(갯스윌연합교회 원

로)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김미진, 김만덕 장로, 남가주헬로십교회,

인랜드 ANC온누리교회, 마원철 목사(Repair Servant), 미주새한교회, 연약교회, 이상배 장로, 기타교실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찬양과 연주로 성탄의 기쁨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각 팀의 찬양을 통해 성탄의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강현규 목사가 인사와 기도를 전하며, 성탄 찬양제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다시금 연합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는 이번 성탄 찬양제를 계기로 지역 교회 간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랜드 지역 한인교회 성탄찬양제가 열린 갯스윌연합교회는 지난 11월 30일 이희철 원로 목사 추대 및 강현규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다. 토마스 맹 기자

“넷플릭스 아동 프로그램 상당수, LGBT 콘텐츠 포함”

미국 기독교 보수단체 ‘컨선드 위민 포 아메리카’(Concerned Women for America, 이하 CW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아동용 프로그램 상당수가 성소수자 관련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총 326개의 아동·청소년 대상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G등급 시리즈의 최소 41%, TV-Y7 등급 시리즈의 41%, TV-Y 등급 시리즈의 21%가 LGBT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대상 시리즈의 33%가 성소수자 주제, 스토리라인 또는 캐릭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난바이너리 등으로 직접 식별되는 캐릭터, 주요 인물이 아닌 ‘퀴어 코드’ 캐

릭터, 게이 가족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참여자가 등장했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아동 프로그램 속 성소수자 콘텐츠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명시적 범주는 LGBT로 직접 식별되는 캐릭터를 포함하며, 암시적 범주는 주요 인물이 아닌 ‘퀴어 코드’ 캐릭터를 지칭한다. 또 메타 범주는 게이 가족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참여자 등 간접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분석 결과, G등급 시리즈의 41%가 LGBT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명시적(18%)과 메타(19%)가 거의 균등하게 분포했다. 암시적 범주에 속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TV-Y7 등급 프로그램에서는 LGBT 콘텐츠가 대부분 노골적인



© Freestocks

형태로 나타났으며, TV-Y 등급 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비율인 2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다섯 편 중 한 편 이상이 관련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스트로베리 숏케이크: 베리 인 더 빅 시티’에서는 트랜스

젠더 캐릭터 ‘배노피’와 난바이너리 캐릭터 ‘레이즌 케인’ 등장했으며, ‘매직 스쿨 버스 라이즈 어게인’에서는 두 엄마와 ‘트랜스 코드’ 카멜레온 캐릭터 ‘리즈’가 포함됐다.

‘베이비시터스 클럽’ 리부트(2020

년 방영)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소년 ‘베일리’를 다뤘다. 베일리의 베이비시터 메리 앤은 “베일리는 자신이 여자라는 걸 안다”는 말하고, 친구 돈은 이를 오른손잡이·왼손잡이에 비유하며 “겉모습이 내면과 어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시즌 만에 취소됐지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방영됐다.

페니 낸스(Penny Nance) CWA 대표는 성명에서 “넷플릭스의 반아동, 반가족 의제가 드러났다.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부 독립 위원회가 프로그램 등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에 관한 대화는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든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러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평가상가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 장 최규남 박사
2026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년 1월 31일 까지

학위과정 안내 DEGREE PROGRAMS OVERVIEW

학사 Bachelor of Arts	석사 Master	박사 Doctoral	International Track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입학 절차 ADMISSIONS PROCESS

1. 원서접수 웹사이트에서 APPLY 클릭
2.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3.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진행

입학 문의 ADMISSIONS CONTACT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교육 인가 기관 ACCREDITING AGENCY

ats, tracs, BPPE

학생 혜택 STUDENT BENEFITS

- 유학권 I-20 발급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 연방정부 학생지원 (FSA)
- 온라인(Online)수업 및 원격 학습 기회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편 37:5-6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13일 임마누엘선교교회서
제51대 회장 한경환 장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가 지난 12월 13일(토) 오전 11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사랑나눔 전달식, 3부 총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찬웅 장로의 사회로 시작됐다. 증경회장 정도영 장로의 기도와 성경봉독 후 충현선교교회 원로 민중기 목사가 '시나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헌금기도는 회계 최덕원 장로가 맡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2부 사랑나눔 전달식에서는 회장 역자 등 총 30곳에 사랑나눔 후원 이득표 장로의 인사말과 함께 국내 이 전달됐다. 극서부신학대학, 고신 신학대학교, 멕시코와 네팔 선교지,

3부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 및 회계·감사 보고가 진행됐으며, 제51대 회장 선출도 이루어졌다. 공천보고 후 제51대 회장으로 한경환 장로가 당선됐으며, 한 장로는 당선 인사를 통해 협의회의 연합과 섬김 사역의 지속을 다짐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는 지난 1년간 기도와 물질로 협의회를 후원한 증경회장단과 고문, 자문위원,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장소를 제공한 임마누엘선교교회 이진경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식사 기도 후 전체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으며, 식사는 탈북동포들이 준비했고 음료와 과일은 김영구 목사가 협찬했다.

김민선 기자

미주합동 서부노회 “사모 없이 목회 없다”

미주합동(총회장 하재식 목사, 사랑한인교회 담임) 산하 서부노회가 주최한 노회 사모님 사은회 “사모 없이 목회 없다” 행사가 15일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안디옥장로교회 원로목사인 김상규 목사의 축복기도로 시작되었으며, 한 해 동안 목회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온 사모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특별히 문광현 목사를 비롯해 산타모니카한인교회(김경렬 목사) 권사회, 복음제일교회(정계동 목사) 등에서 사모님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푸짐한 선

물이 전달됐다. 서부노회 측에서 준비한 만찬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헌신해 온 사모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부노회는 2026년에도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 사역을 지속하며 사모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계속해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노회 미래목회위원회(위원장 케니 김 목사)는 차세대와 미래 목회를 위한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위원회는 1세 교회를 위한 영어 설교 프로그램을 통해, EM 사역자에게

만 영어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주는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영어로 설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ECA에서 안수를 받았으나 현재 노회에 등록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현재 독립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노회 가입을 돕기 위한 편목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ECA 출신 목회자들의 문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서부노회 미래목회준비위원회 213-522-9799 (케니 김 목사)



‘꿈이 있는 자유’ 28일 성탄 콘서트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엠 교회(I AM Church, 정종원 목사)는 오는 주일인 12월 21일 오후 2시 교회 본당(412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감사 콘서트를 연다.

주소: 412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효사랑 시니어대학 제3회 송년음악축제 성료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산하 효사랑 시니어대학이 2025년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3회 송년음악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시니어 학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배움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선교회 후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찬 목사는 “시니어의 생애는 수확의 시기”라며 “재능을 커뮤니티에 기부함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조성우 학장 역시 “노년은 결코 멈춤의 계절이 아니다. 오늘 무대 위 연주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생애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라



효사랑 시니어대학이 ‘제3회 송년음악축제’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과 자리를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조 학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박수는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 공

과 조이스 안 부에나팍 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공연은 음악교실과 하모니카 팀의 따뜻한 캐롤 연주를 시작으로, 라인댄스 팀의 경쾌한 율동과 난타 팀의 힘찬 퍼포먼스가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 에어로빅 연주, 중창단의 화음, 유용우 목사 부부의 색소폰 특별 연주가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의 피날레는 합창단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등의 열창으로 장식됐다. 효사랑선교회는 “2026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다며 축제를 마무리했다.

김민선 기자

OC장로협의회 이취임식 27일

참된 장로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The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는 오는 27일(토) 오후 4시 플러튼의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제12대 회장 김영수 장로와 이사장 황치은 장로 이취임예배를 드린다.

조셉 리 기자

문의: 사무총장 정석봉 장로 (714-234-1856)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4시

주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SHALOM
ACUPUNCTURE

살롬한의의원

Diamond Bar 살롬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909) 860-4260

cell:(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신윤석 목사, 모든 이야기는 ‘응답하라 1992’로 귀결된다

많은 크리스천에게 신앙 여정에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여러분의 신앙 추억은 어느 해인가?”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담임목사에게는 1992년이 바로 그해이다. 지난 11월, 신 목사는 TV 기독교일보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에 출연해 진행자 곽윤영 집사와 이성일 목사와 함께 자신의 신앙 여정 중 잊히지 않는 ‘응답하라 199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신 목사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요철야기도회에서 들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통용’이 그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의미로 다가왔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원치 않던 기도를 시작했을 때, 마음속 찌꺼기가 불에 타 사라지듯 주님과 소통 장 애물이 제거되는 경험을 했다.

다음은 신윤석 목사가 진행자들과 나눈 하나님과의 소통 이야기.

-신앙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아버지는 교육자셨습니다. 이미 1992년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벌써 33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청렴하고 정직하며, 세상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머니는 저희 가정의 초대 신앙이십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도 전도 되셨고,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온 가족은 물론 사촌, 육촌까지 복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속 신앙에 익숙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부딪히며 가족을 감화시키는 과정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저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모든 이야기는 ‘응답하라 1992’로 귀결됩니다. 1992년 1월 31일, 금요일 철야 기도 시간에 중생 체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목사는 성대 결절과 고관절 통증을 겪으며 목회자의 전인적 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는 박사논문으로 이어졌다.

중학교 1학년 때 드린 서원기도로 아버지 수명 11년 연장 트레일 위의 목회자: 영·혼·육 균형이 가져온 새로운 충만 목회자 자기 관리, 걷는 만큼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부 수련회에 참여해 예배소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제 안에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금요 철야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통용’이 제게는 ‘소통’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간구에 불과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안에 있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스킵해 버렸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제 마음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어둡컴한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막혀 있던 동굴 같은 심령에 빛이 들어오듯, 마음이 열리고 제 마음을 어둡게 막고 있던 찌꺼기들이 불에 태운듯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까지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회개의 기도가 밤새 이어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날짜를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1992년 1월 31일입니다.

- 그때 목회자로 헌신하셨나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간경화와 당뇨 합병증으로 위독하셨고, 셋방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치오니 제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11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가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한 해였습니다.

- 그 11년 동안, 목회자의 길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신, 신학교에 보니까 정말 거룩한 신앙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좀 더 제가 덧붙인다면, 경제적인 삶을 보면, 부자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월말이면 통장에 몇 십불, 마이너스가 되어서 매꿔야 하는 생활이 지금까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잠들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으로 채워주시면서 지난 30여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 중에는 성대 마비와 고관절 신경 통증이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대에는 곰팡이 감염이 발생했고, 다리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적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통증이 가실 때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사임하고 긴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저에게는 고난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몸을 돌보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저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예배당, 새벽 기도, 늘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 혼, 육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레일을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제목들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시간 두 시간 걷다 왔는데, 제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고 제 입술, 제 영혼에 찬양이 넘쳐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목회자 자기 관리’라는 박사

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에게 역사하신 거 있다면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회를 하여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 같습니다.

- 그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목회를 그만하라는 뜻인가 하고 그냥 내려 놓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백을 제가 왜 안했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목회 사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인생의 결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간 동안, ‘목회자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난을 겪으며, 전인적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것에 대해 공부하며, 책을 읽고 있던 중, 교수님의 격려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필렌의 새벽별 교회에서 3년간 주일 설교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설 문제로, 2025년 6월 말로 주일 설교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3주가 지났을 때, 좋은나무교회에 설교자로 가게 되었고 공동회의 청빙을 통해 담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랑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돌보듯 섬기고 싶습니다.

좋은나무교회
www.goodtreefellowship.com/
주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 서부지방

GMC는 동성애와 비성경 가치를 말씀의 순종으로 변혁시키기 위해 전세계 약 7,000개 교회가 결단하여 2024년에 창립된 감리교단입니다.

LA 베이직 교회

이선기 담임목사
Tel : 213-255-0521
1304 Cochran Ave, Los Angeles, CA 90019

더힐링 Church

김정두 담임목사
Tel : 949-568-1916
23822 Avenida Sevilla, Laguna Woods, CA 92637

라스베가스 교회

최영완 담임목사
Tel : 702-582-2447
2100 Snow Trail Las Vegas, NV 89134

로렘 교회

이성현 담임목사
Tel : 808-500-0077
290 Sand Island Access Rd, Honolulu, HI 96818

미라클 LA 교회

신병옥 담임목사
Tel : 213-298-3399
3460 Wilshire Blvd, 7 Floor, Los Angeles, CA 90010

새빛 사랑 교회

박 유 담임목사
Tel : 469-855-7857
4652 Eagle Rock Blvd, Los Angeles, CA 90041

생수의 강 교회

김영웅 담임목사
Tel : 213-275-1992
463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님의 축복 교회

이태범 담임목사
Tel : 714-902-9292
21209 Claretta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주 반석 교회

강현중 담임목사
Tel : 213-235-7659
26231 Silver Spur Rd,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올 한 해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떡국 나눔 행사

\$18,000 장학행사에 기부

4월

태진아 트로트 공연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 2주년

5월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7월

성악가 조수미 공연

11월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

8월

무성영화 번사 영화제

2026년 **에도**
변함없는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 규제? 사상 검열 · 언론 통제 악용 소지”

동반연·진평연 등,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안 규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에 대해 “반민주적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를 위한 악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미 2018년 김부겸 의원이 유사한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가 거센 사회적 논란 끝에 철회한 전례가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정일영, 박지원, 강선우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단체들은 법률명과 달리 법안의 실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제2조가 혐오표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특성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차별·배제·모욕·위협은 물론 ‘정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만 해도 혐오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이나 평등법안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오히려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별 사유가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종교, 정치적

의견, 낙태, 전과 여부 등까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 결과 동성애나 성전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사이버 종교 비판이나 낙태 반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비판 등도 혐오표현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이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직자의 설교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교적 교리와 신념에 근거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비판적 설교조차 혐오표현으로 규제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표현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유통과 비판적 표현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반민주적 악법”이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 악법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법안이 강행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속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가 연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유버전 ‘2025 최다 검색 성구’ 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은 최근 기독교인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로 이사야 41장 10절을 꼽았다. 이 성구는 지난 6년간 네 번이나 1위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 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유버전 창립자 바비 그룬왈드(Bobby Gruenewald) 대표는 “이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라는 가장 깊은 필요를 다루기 때문”이라며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 이끌린다.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다”고 말했다.



©YouVersion

2025년은 유버전 역사상 성경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해였다. ‘글로벌 성경의 달’인 11월 첫째 주일 하루에만 1,900만 명 이상이 이 앱을 이용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30일 성경 챌린지에는 260만 명이 참여했으며, 매일 성경 사용이 2024년 대비 19% 증가했다. 새해 첫날에는 3백만 명이 1년 성경 계획에 가입해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부활주일에는 1,900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2일 주일에는 앱 역사상 가장 많은 성경 참여가 기록됐고, 8월 말부터 11월까지 매주 일마다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그룬왈드는 “우리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사람들은 진실되고 진짜인 것을 갈망한다. 성경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우리의 일상과 깊이 관련돼 있다”며 “이 숫자들은 수백만 명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과 방향, 목적을 찾는 사람들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2025년 성경 참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1일 성경 사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7%, 북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33% 늘었다. 이미 성경 앱 사용이 활발한 북미 지역에서도 14%의 성장을 기록했다.

연중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사랑, 불안, 평화였으며,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과 걱정을 반영했다. 이사야 41장 10절 외에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검색된 구절로 꼽혔다.

평균적으로 매초마다 40일 성경 계획이 완료됐고, 112개의 성경구

절이 강조·북마크·기록되며 단순한 읽기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그룬왈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동력은 2026년과 그 이후를 향한 담대한 믿음을 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참여할 때, 그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선 변화를 가져온다”며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글로벌 성경의 달’ 동안 형성된 습관이 계속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삶을 바꾸는 힘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버전은 라이프닷처치(Life.Church)가 만든 무료 성경 앱으로,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하고 도전한다. 전 세계 10억 대 이상의 기기에 설치됐으며, 2,3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 오프라인 사용이 최적화돼 기기와 데이터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OneHope와 협력해 개발한 상호작용 애니메이션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과 교감하도록 돕고 있다. 강혜진 기자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Show Room

949-781-911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늘 [우]이
먼저였습니다

늘 [우]가 먼저였습니다.
엘에이, 뉴욕, 시애틀, 하와이, 애틀랜타,
우리가 있는 곳이면
늘 한인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김철민 장로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8:00AM
주일예배 2부 10:30AM
주일학교 10:30 AM
청소년 예배 10:30 AM
English Service 9:00 PM
금요예배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www.thejoylife.org



이희문 담임목사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검증) e-mail: joylife9191@gmail.com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 - 온라인 오전 6:00
화 ~ 토 - 현장 영상예배 (오전 6:00)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안병권 담임목사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초중고등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Anointing 찬양워십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이황영 담임목사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CA90710
T:(310)326-0300

멜리데교회

주일 1부 오전 8:30 (본당)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본당)
토 오전 6:30
중고등부 오전 10:40 (1층 중고등부실)
유초등부 오전 11:00 (2층 유초등부실)



고귀남 담임목사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820-0003

씨미밸리침례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15
주일영아부예배 오전 9:45
수요제자훈련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반채근 담임목사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방주교회

주일예배 오후 12:00
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김경규 담임목사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구세군 OC 한인교회

주일예배
1 부 : 오전 9:00
장소 : 94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김성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2 부 : 오후 12:30
장소 : 1515 W. North St,
Anaheim, CA 92801

주님세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교회학교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신용환 담임목사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325-4020

밸리주하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Youth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5: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태훈 담임목사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T.(818)794-0691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성요셉 담임목사

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ijo@hotmail.com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남재현 담임목사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한마음제자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30
금요 찬양기도의 밤 저녁 8:00
새벽기도 (화-금) 새벽 5:30



곽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상집회 오후 7:30(월~금)
오후 3:00(토)



김성식 담임목사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토랜스조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가명훈 담임목사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토랜스선한목자교회

한어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영어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한어주일/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이승희 담임목사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밸리생명의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



변은광 담임목사

18531 Gresham St. Northridge, CA 91324
T.(213)434-5868 johnserves@yahoo.com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김정우 담임목사

23670 Wiley Canyon Rd, Valencia, CA 91355
T.(661)964-8205

LA 건강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영봉 담임목사

2525 W. 8th St, #205, Los Angeles, CA 9005
T.(213)271-50347 / Youngbchoe@gmail.com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 화~목 오전 6:00
토 오전 7: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이봉하 담임목사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T.(714)772-3100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축 성 탄

평강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pyongkangch@gmail.com
http://pyongkang.com
T.(213)393-9136

샘 중앙 커뮤니티교회

예배시간 안내

한어예배 : 주일 11:00 am
영어예배 : 주일12: 30 pm
Hispanic : 2 pm
수요예배 : 7:30 pm
새벽기도회 : 화 ~ 토 5:30 am



샘 신 담임목사

찬양인도자 구함

samshin0127@gmail.com

주소 및 전화

125 South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04
T.(213)215-6029

갯스윌연합교회

God's will Alliance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0:45
English 통역 주일 오전 11:00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EM 주일 오후 1:30
수요중보기도 오전 10:00
토요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
큐티모임
기타교실 주일 오후 1:00



강현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904 East D St. Ontario, CA 91764
T. (909)983-0994, Cell: 626-710-7173, Email: gfc0691@gmail.com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F. (213)383-5085
info@joohyang.org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박영준 목사
부 총회장: 안선신 목사
총 무: 서진건 목사
부총무: 김보겸 목사, 고무디 목사
서 기: 조은혜 목사
부서기: 윤구영 목사
회록서기: 서은남 목사
회록부서기: 박춘혜 목사
회 계: 안정희 목사
부회계: 이종숙 목사
감 사: 서사라 목사, 진건호 목사
사무총장: 엘리야김 목사
LA 노회장: 엘리야김
부 노회장: 진건호 목사
남부노회 노회장: 김인철 목사
부 노회장: 강성수 목사



총회장: 박영준 목사

교단 가입 상담 213-272-6031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공적신학 실천 센터 비전”

복음을 확신하며 복음의 실천을 통해 공적교회의 공적책임에 다가선다!



류준영 목사

www.pubtheo.org
T.(310)738-0485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축 성 탄

다우니제일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아동부 주일예배 오전 11:00
Youth, EM 주일 오전11:00



지영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el)562-861-1004 downeyfirstchurch@gmail.com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한어대학청년부(드림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금 저녁 7: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20



우영화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연합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45
EM Youth & Preschool Sunday
Worship 주일 오전 10:45
수요, 금요 저녁 기도회 수,금 오후 8:00
토요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
목장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담임 김종호 목사

주소 및 전화

11135 & 11145 Morrison St. North Hollywood, CA 91601
T.(213)281-1196 pastorjonghokim@gmail.com

산타모니카 한인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오레곤 벨엘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2:00
수요온라인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391 SW Blanton St. Beaverton, OR 97078
T. (503) 649-3990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대청Promise 오후 2:00
수요성령집회 오후 7:30
목요여성예배 오전 10:30



박신웅 담당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집으며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개혁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 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우영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참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8: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男을 男이라 부른” 英 기독교인 간호사, 징계 심리 돌연 취소돼



▲제니퍼 멜, ©기독교법률센터 제공

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제니퍼 멜(Jennifer Melle)의 징계 심리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아직 새로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멜레는 지난 4월 트랜스젠더 환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해당 환자는 고보안 남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멜은 치료 문제를 의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물학적 성별을 언급하며 ‘미스터(Mr)’라고 불렀고, 이에 환자는 그녀를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멜은 언론에 정직 처분 사실을 알린 뒤, ‘데이터 유출’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간호및조산위원회(NWV)는 그녀가 환자를 잘못된 성별로 호칭한 것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멜은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처벌받고 있다고 맞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당초 이번 징계 심리는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멜을 지원하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이하 CLC)

는 심리위원회 구성원의 부재로 청문회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엡스 앤 세인트 헬리어 트러스트는 사건을 취하하고 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그들은 오히려 그녀를 몇 달간의 불확실성 속에 끌고 가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트러스트를 책임지게 하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이 사건은 NHS가 성별 이념과 생물학적 현실 간의 갈등을 다루는 데 선례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멜은 “저는 항상 모든 환자에게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양심상 남성 소아성애자를 여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며 “그렇게 하면 진실이 위태롭고, 환자 안전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멜은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데노크(Kemi Badenoch)과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J.K. Rowling)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받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마약과의 전쟁은 성공했는가?

크리스천포스트는 토니 퍼킨스의 기고글 ‘마약과의 전쟁은 성공했는가? 진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Has the war on drugs succeeded? The real problem is far worse)를 11일 게재했다.

토니 퍼킨스는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이며, 워싱턴 스탠드(The Washington Stand)의 총괄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프랭크 ‘미치’ 브래들리 해군 대장은 이번 주,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테러 조직 선박에 대한 군사 공격과 관련해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이 약 20차례에 걸쳐 총 8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다른 공격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두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차 사격’이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피트 헤그레스 국방장관이 “모두 사살하라(Kill them all)”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옹호하며 “우리가 격침시키는 배 한 척마다 2만5천 명의 미국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마약 선박을 공습하는 방식은 분명 새로운 시도이지만, 마약 테러 조직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 일은 아니다. 현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1971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 남용을 ‘공공의 적 제1호’로 규정하며 전국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2년 뒤 그는 미국 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단속국(DEA)을 창설했다. 1980년대에는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이 전쟁은 더욱 격화됐다.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은 과연 성공했는가? 마약 선박의 화물과 선원을 제거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증거는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사업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려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마



토니 퍼킨스, © Christian Post

약과의 전쟁이 50년 넘게 이어졌지만,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줄어들기는커녕 폭증했다. 1971년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과다복용 사망자는 3.3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4.3명으로 증가해 7배 이상 늘어났다.

역사와 수요·공급의 냉정한 법칙은 공급만 줄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거래를 더 수익성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범죄의 기업 이론’에 따르면, 조직 범죄 집단은 불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익성 있는 수요가 있을 때만 등장한다. 다시 말해, 공급은 수요를 따른다. 다크 웹 마약 시장을 분석한 한 연구 역시 판매자들이 단순히 생산국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많은 국가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약과의 전쟁이 언젠가 성공하려면, 그 초점은 범죄 공급자에만 머물지 않고 이 시장을 유지시키는 ‘상처 입은 사용자들’로 이동해야 한다.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그 책임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마약 사용은 사회적 붕괴에서 비롯된다. 가정의 해체, 고립, 포괄 압박, 경제적 절망, 마약을 미화하는 미디어, 약화된 사회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과 희망을 상실한 영적 공허가 그것이다.

희망과 목적, 정체성, 용서에서 오는 자유, 그리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현실 도피를 위해 약물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회적·영적 결핍은 서로를 강화하며, 진정한 회복은 관계 회복, 현실의 고통에 대한 직면, 그리고 거짓된 위안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영적 공백을 다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최승연 기자

성탄절의 조용한 거인, 요셉이 들려주는 일곱 가지 신앙의 진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마크 크리치 목사의 기고글인 '성탄절의 조용한 거인, 성 요셉에 관한 놀라운 7가지 사실'(7 amazing facts about St. Joseph, the quiet giant of Christmas)을 11일 게재했다.

마크 H. 크리치 목사(Rev. Mark H. Creech)는 노스캐롤라이나 기독교행동연맹(Christian Action League of North Carolina, Inc.)의 사무총장이다. 그는 이 직책을 맡기 전에 20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섯 곳의 남침례교회와 뉴욕주 북부에서 한 곳의 독립침례교회를 섬겼다. 다음은 기고글 요약문.



마크 크리치 목사. ©Christian Post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떠올린다. 천사들의 노래를 부르고, 목자들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따라간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배경,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너무나 묵묵하고 신실하여,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결코 지금의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요셉은 거의 모든 성탄절 무대에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를 실루엣처럼 취급한다. 지팡이를 든 채 구유 곁에서 있는 조연, 마리아 곁을 장식하는 부속물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는 '성탄절의 조용한 거인'이라 불릴 만하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은 인격과 신실함으로 크게 울려 퍼진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진하도록 조용히 헌신한 의로운 사람이었다. 어떤 이들은 웅변이나 위대한 업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요셉은 단순하고 충실한 순종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단 몇 절에 불과한 그의 삶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맡기실 만큼 신뢰하신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요셉은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곱 가지 강력한 진리가 뚜렷하게 떠오른다.

1. 의로움은 공홀과 분리될 수 없다

성경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조용한 도덕적 아름다움이다.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마태복음 1:19)라고 기록한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결된 사람, 정의와 정직, 도덕적 올곧음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경직되거나 율법 주의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공홀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마태복음 1:19) 하였다. 아직 마리아의 무죄함과 그 태중의 기적을 알기 전이었음에도, 요셉은 공개적인 수치의 길을 거부했다. 깊이 상처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정죄 대신 자비를 선택했다.

이는 마음이 차가운 채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의로움이다. 요셉의 의로움은 보호하고 살리는 의로움이었다. 그는 헤롯의 악한 살해 계획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수치에서 지켜냈다. 이를 통해 그는 오늘날 거의 잊혀진 진리를 가르쳐 준다. 참된 의로움은 처벌을 서두르지 않으며,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다. 거룩함과 공홀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동행한다.

2.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인도하신다

요셉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

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세 차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신다. 예수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알리시고, 헤롯의 분노를 경고하시며, 애굽에서 돌아올 시점을 지시하신다(마태복음 1:20; 2:13; 2:19). 그때마다 요셉은 지체 없이 순종한다. 그는 듣고, 자신을 낮추며, 그대로 따른다. 이러한 반응성은 겸손에서 비롯된다. 미가 선지자는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한다(미가 6:8). 예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 5:3)라고 선언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삶의 계산에서 배제한다. 요셉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그는 가르침을 받을 만큼 겸손했고, 들을 만큼 조용했다.

3. 순종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오는 문

요셉의 삶은 순종이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임을 보여준다.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따지거나 이해될 때까지 미루지 않았다. 그는 순종했다(마태복음 1:24).

그의 삶 전체가 이 패턴을 따른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마태복음 2:14) 즉시 피신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마태복음 2:21). 그의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이 대개 순종 이후에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자신에게 부담이 될 때 물러선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갔다. 준비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펼치신다.

4.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이를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

의로움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복 주신다. 요셉의 삶이 그러하다. 그의 의로움은 마리아와 그리스도 아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패였다.

요셉의 의로움은 실제적인 보호로 나타났다.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고, 다시 돌아오는 지시에도 그대로 따랐다(마태복음 2:13-21). 그의 신실함을 통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보존되었고,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복음은 역사 속으로 안전하게 이어졌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5.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요셉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의 말이 단 한 마디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복음서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만 말할 뿐, 무엇을 말했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소극성의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의 침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즉시 행동으로 응답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사야 6:8)이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외치는 듯하다. 소음과 정보로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요셉은 단순함과 꾸준함, 조용한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웅변이었다.

6.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위대함이다

요셉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군중 앞에 서지도 않았다. 성경의 큰 서사 속에서 그의 역할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목수에게 맡기셨다. 요셉은 예수에게 일과 예배, 기도, 일상의 경건함을 가르쳤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누가복음 2:40, 52) 성장하신 그 배경에는 요셉의 흔들림 없는 삶이 있었다. 요셉의 위대함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의 충실함에 있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침내)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양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송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k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8
E-Mail : ine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배에는 수반제거와
면역력서 제증 증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LA여성선교합창단, 갤러리아서 깜짝 공연

12월 12일, 12시에 LA 갤러리아 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다. 연말을 맞이하여 LA여성선교합창단의 Flash mop 선물로 우울했던 12월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연주한 것. 이날 합창단은 7-8곡의 크리스마스 캐롤로 성탄의 기쁨을 전했다. LA여성선교합창단은 외롭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전현미 지휘자의

LA여성선교합창단이 LA 갤러리아몰에서 플래시 몹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

인도 아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엔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연락처: 213) 820-2888 / 213) 703-2568

ANC 인싱크대학, 태국 반타와이 선교보고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소속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전도 단체인 '인싱크 대학(학장 이진형 목사)' 선교팀이 태국 반타와이 교회를 방문해 성탄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인싱크 팀은 "작년에 비해 반타와이 교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분명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별히 이번 성탄 주일예배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 1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영접기도에 동참했고 우울증을 앓던 청년, 150km가 넘는 먼 곳에서 온 불교 신자 부부, 70세 불교도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전했다. 예배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을 초청한 성탄 축제가 열렸다. 선교팀은 참석한 모든이에게 정성껏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사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시니어 성도들의 적극적인 복

음 증거가 꼽혔다.

인싱크 팀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기독교 인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태국에서 이들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 내년에는 2%, 이후에는 4%로 배가되는 부흥이 일어나

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교팀은 왓산콩 초등학교에서 열릴 VBS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번 VBS는 약 70명의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 복음 팔찌 나눔, 게임 등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싱크대학 학장인 이진형 목사와 태국 반타이 지역 아이들 ©인싱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경찰국 방문해 사랑 나눠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가 지난 12월 6일(금)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매년 연말이면 이 교회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행사를 해오고 있다.

한편, 21일(주일) 오후 6시 본당에서, 2025년'영혼의 초대'네 번째, 성탄으로의 초대(전교인 성탄 축하의 밤)을 개최한다.

연극, 찬양, 연주, 영상, 워십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SCAN M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새라 김 칼럼

넷플릭스의 아동을 겨냥한 더 심각해진 LGBTQ+ 내용 고발!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몇 년 전부터 넷플릭스는 여전히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십대 미만의 어린이들에게까지 LGBT 동성애 관련 콘텐츠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비판이나 구독 취소를 넘어, 이제는 보이콧(boycott·불매) 운동에 나서는 개인과 단체들까지 늘어날 만큼 넷플릭스의 어린이 대상 콘텐츠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귀엽고, 깜찍하며, 사랑스럽고 답답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학부모와 교회 교사, 교역자들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학부모들과 교회에 분별력과 용기,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들의 고귀한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여성 단체인 ‘Concerned Women for America(CWA)’의 최근 보고서는 넷플릭스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의도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WA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아동·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등급을 받은 넷플릭스 시리즈 326편을 대상으로 LG-BTQ+ 주제, 동성애 등장인물, 트랜스젠더 스토리라인 및 관련 언급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포트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 TV-G, TV-Y, TV-Y7 등 어린이 시청자 등급으로 분류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관련 주제와 스토리라인의 표현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1. 명시적 표현(Explici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비이분법적 성별 정체성(LGBTQAI+)으로 명확히 규정된 캐릭터
2. 암시적 표현(Implicit): 이른바 ‘퀴어 코딩(Queer Coding)’ 이 된 캐릭터
3. 메타적 표현(Meta): 게이 가족이나 리얼리

티 프로그램 참가자 등 간접적 노출

4. 없음(None): 동성애 관련 요소 전혀 없음
보고서에 담긴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동들도 시청하는 TV-G 등급 시리즈의 41%, TV-Y7 등급 시리즈의 41%에 LGBTQ+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TV-Y7 등급 콘텐츠 중 24%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포함해 ‘명시적(Explicit)’ 등급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100% 아동 적합(age-appropriate) 등급이라고 홍보한 TV-G, TV-Y, TV-Y7 콘텐츠 가운데 약 3분의 1(33%)이 LGBT 캐릭터, 주제 또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의 리메이크 과정에서 LGBT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리메이크를 통해 LGBTQ+ 동성애·트랜스젠더 의제를 추진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1. 트랜스젠더 캐릭터와 레즈비언 커플을 도입한 「매직 스쿨 버스」 리부트
2.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캐릭터를 추가해 재해석한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시리즈
3. 「파워 레인저」, 「The Fairly OddParents」 등 다른 프랜차이즈의 업데이트 버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이루어짐

4. 동성애적 주제를 포함시킨 「빨간 머리 앤」 각색작, 제목을 「앤 위드 에이(Anne with an E)」로 변경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넷플릭스가 내세우는 “연령에 적합한(age-appropriate), 가족 친화적, 교육적인 콘텐츠”라는 홍보 문구와는 현격히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즈니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총괄 프로듀서가 「마이 리틀 포니(My Little Pony)」에 동성 커플을 삽입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며,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자랑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넷플릭스는 USC 애너버그 스쿨이 주도한 ‘Inclusion Initiative(포용성 이니셔티브)’와 협력했으며, 그 결과 신규 아동 등급 프로그램의 60% 이상에 LGBT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반기독교적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 넷플릭스에서 LGBTQ+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 프로그램은 9편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LGBTQ+ 콘텐츠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14편에 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요 칼럼

내 생애 최초의 연극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매년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아끼던 시집에 겨놓은 가을 낙엽을 찾듯이 인생에 잊지 못할 낭만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 평생 교회에서 자라왔고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더욱 이 계절에 주시는 추억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연극에 발탁되어 요셉의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기억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저의 생애에 유일한 연극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던지라, 안경에 숨을 달아 마치 고드름이 달린 것

처럼 추위에 떨듯이 대사를 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침 제 이름의 뜻이 ‘한국의 요셉’인지라(물론 제 이름의 요셉은 구약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earthly father) 요셉의 역할을 쉽게 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꼭 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아이를 밴 임신한 여자를 지켜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자기의 씨가 아닌 아기를 임신한 여자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혼을 할 뿐 아니라 치욕적인 불명예를 입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은 참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마 1:19). 피해 의식 속에 반응한 것이 아니

라, 한 여인의 생명과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스캔들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에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에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조연들이 많습니다. 산타클로스를 위시해서 루돌프 사슴, 선물 담은 양말, 징글벨, 반짝거리는 백화점 장식 등...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조연이 있다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응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인물, 요셉이 아니었다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뚫고 들어오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의도적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의 이름, 예수... 그 이름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도록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한 요셉은 잊혀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잊혀진 요셉과 같은 은혜의 손길이 없었는지 잠시 뒤돌아보며,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은 신선한 크리스마스 무대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바라기

성탄 1 - 김은주

슬픈 성탄인줄 알았더니
외로운 성탄인줄 알았더니
초라한 성탄인줄 알았더니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님이 물으시니

슬픔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초라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성탄이다

주님과 단둘이
소망이 넘친다...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크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마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강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커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융합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성경 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 : 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500년 신앙고백서의 현대적 재조명

신앙의 뿌리 찾고자 하는 이들 위한 명확한 길잡이



처음 시작하는 벨직 신앙고백

김태희 | 세움북스 | 252쪽 | 15,000원

유럽 개혁신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인 〈벨직 신앙고백〉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입문서다. 1561년,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귀도 드 브레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작성한 벨직 신앙고백은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귀한 유산이다

이 책은 총 3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벨직 신앙고백을 따라가며 하나님, 성경, 삼위일체, 구원, 교회 등 기독교 핵심 교리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특히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현대에 접목하며 쉽게 풀어내는 데 탁월한 저자의 안내는 독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 중심의 건강한 믿음을 세우도록 돕는다

『처음 시작하는 벨직 신앙고백』은 개혁신교회의 대표적 신앙고백서인 벨직 신앙고백을 쉽고 체계적으로 풀어낸 입문서이다.

이 책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탄생한 벨직 신앙고백의 역사적 배경과 신앙적 내용을 현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오늘날 신앙 생활에 미치는 의의를 깊이 있게 다룬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고백서 공부에 문턱을 낮추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돼 준다.

1. 벨직 신앙고백의 역사적 배경과 탄생

벨직 신앙고백은 1561년 스페인 지배 하에 있던 남부 네덜란드 지역(현재 벨기에)에서 귀도 드 브레(Guido de Brès)에 의해 작성됐다. 저자 김태희는 이 신앙고백서가 단순한 교리 문서가 아니라, 당시 박해받던 개혁신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건히 세우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탄생한 놀라운 선물임을 강조한다. 벨직 신앙고백의 명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당시 네덜란드는 현재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7개 주로 이뤄진 지역이었기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이라고도 불렸지만, 실제로는 벨기에 지역에서 벨기에 출신 귀도 드 브레가 작성했기에, 벨직 신앙고백으로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처럼 신앙고백서는 단순한 신학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지리적 배경과 신앙 공동체의 고통과 소망이 녹아든 산물임을 보여준다.

2. 벨직 신앙고백의 구조와 핵심 내용

저자는 벨직 신앙고백 37개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사도신경 구조를 따라 신앙의 기본 진리를 설명한다. 하나님과 계시(1-2조):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며,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밝힌다. 성경의 권위(3-7조):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이다. 삼위일체(8-11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함을 고백한다. 인간

의 창조와 타락(12-15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나,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전적 타락 상태에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16-26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참된 교회와 국가(27-36조): 참된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교회이며,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관계도 다룬다. 예수님의 재림(37조):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심판을 고백한다. 저자는 각 조항의 신학적 의미와 성경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독자들이 신앙고백서가 단순한 교리 암기가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안내서임을 깨닫도록 돕는다.

3. 벨직 신앙고백의 현대적 의의

저자는 벨직 신앙고백을 오늘날에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현대 교회는 감정이나 경험에 치우친 신앙 경향이 강한데, 벨직 신앙고백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둘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한다. 셋째,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16세기 네덜란드 신자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벨직 신앙고백을 통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신앙고백을 통해 일치와 연합을 이루도록 돕는다. 넷째, 건강한 교회론을 세운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이처럼 벨직 신앙고백은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과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 있는 신앙고백서임을 강조한다.

4. 책의 특징과 활용 가치

『처음 시작하는 벨직 신앙고백』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신앙고백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는 점이다. 김태희 저자는 복잡한



벨기에 전경. ©픽사베이

신학 용어와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며, 독자들이 부담 없이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이 책은 단순한 교리 해설에 그치지 않고, 각 조항이 오늘날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이 점은 교회 내 교리 교육, 소그룹 성경 공부, 신앙 입문자 교육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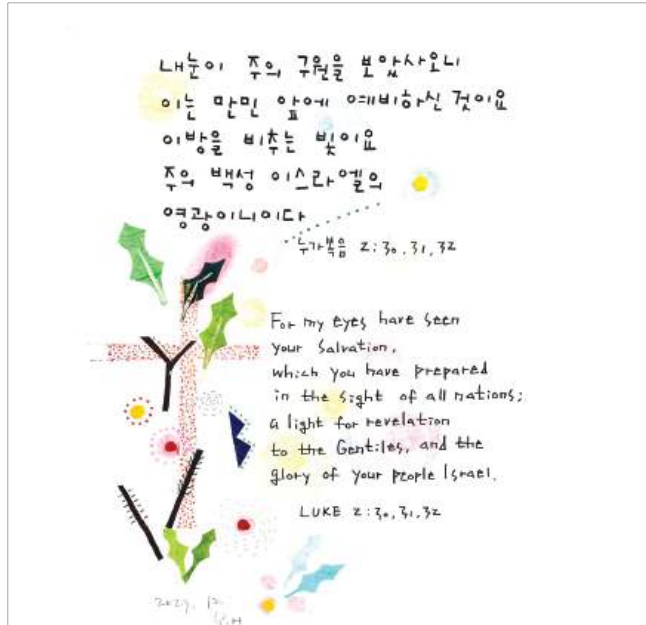
250쪽은 깊이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분량이며, 명확한 구성과 친절한 설명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신앙고백서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5. 결론: 신앙의 뿌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처음 시작하는 벨직 신앙고백』은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 신앙고백서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맞게 재조명한 안내서이다. 성경에 뿌리내린 건강한 신앙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성숙을 도모하려는 모든 신앙인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역사적 신앙고백서가 단순한 과거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신앙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MERRY CHRISTMAS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서성록, 한 점의 그림] 히에로니무스 보쉬, 인간의 욕망과 구원

드론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담아낸 인간의 죄와 구원

괴물과 키메라의 발명이 보쉬 인간 죄와 부도덕 많이 그려내 상상력 풍부한 이미지 담아내 브뤼헬·피카소, 초현실주의로

흔히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 1450?-1516)를 가리켜 ‘괴물과 키메라의 발명가’로 부른다. 그의 작품이 그로테스크하거나 불편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술사가 카렐 반 만데르(Karel van Mander) 역시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판타지이며 ... 유쾌하기보다는 섬뜩하다”고 기술했다.

인간의 죄와 부도덕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보쉬만의 풍부한 상상을 보태면서, 차츰 그의 개성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평생 그렇게 다작을 하지는 않았으나 유존하는 작품 중에는 우리가 알 만한 명화가 제법 많은 편이다. 여기서는 그의 면모를 잘 엿볼 수 있는 두 점을 선별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곱 가지 중대한 죄와 네 가지 죄후의 사건〉(The Seven Deadly Sins and the Four Last Things, 1500년경, 이하 칠죄종)은 중앙의 동심원 주위에 네 가지 다른 도상을 결들인 구도로 돼 있다. 중앙 동심원에는 인간의 중대한 죄, 즉 분노(Ira), 질투(Invidia), 탐욕(Avaricia), 탐식(Gula), 나태(Accidia), 정욕(Luxuria), 자만심(Superbia) 등이 위치해 있고, 주위 네 원에는 ‘죄인의 죽음, 심판, 지옥, 영광’이 각각 그려져 있다. 동심원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다. 부활한 영광의 그리스도 주위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원형 안의 작은 원이 마치 사람의 눈처럼 보인다.

보쉬는 예수상 밑에 ‘Cave Cave Deus Videt’이라는 라틴어를 적어 놓았는데, 그것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이다. 또 화면 상하에 있는 띠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적혀 있다.

위쪽 띠에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신 32:28-29)”는 구절, 아래쪽 띠에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20절)”는 구절이 쓰여 있다. 인용한 두 구절로 미뤄

이 그림은 인류 종말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보쉬의 생각은 원판 안의 일곱 이미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 하단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첫째 장면 분노(Ira)는 무기를 든 두 농부가 여관 앞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한 여성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를 막으려 하고, 왼쪽의 남성은 이미 의자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

두 번째 질투(Invidia)는 집안 왼쪽에 있는 여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지만, 옆에 있는 남성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장미를 선물하려 한다.

세 번째 탐욕(Avaricia)은 공정해야 할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한편 벤치에 앉아 있는 두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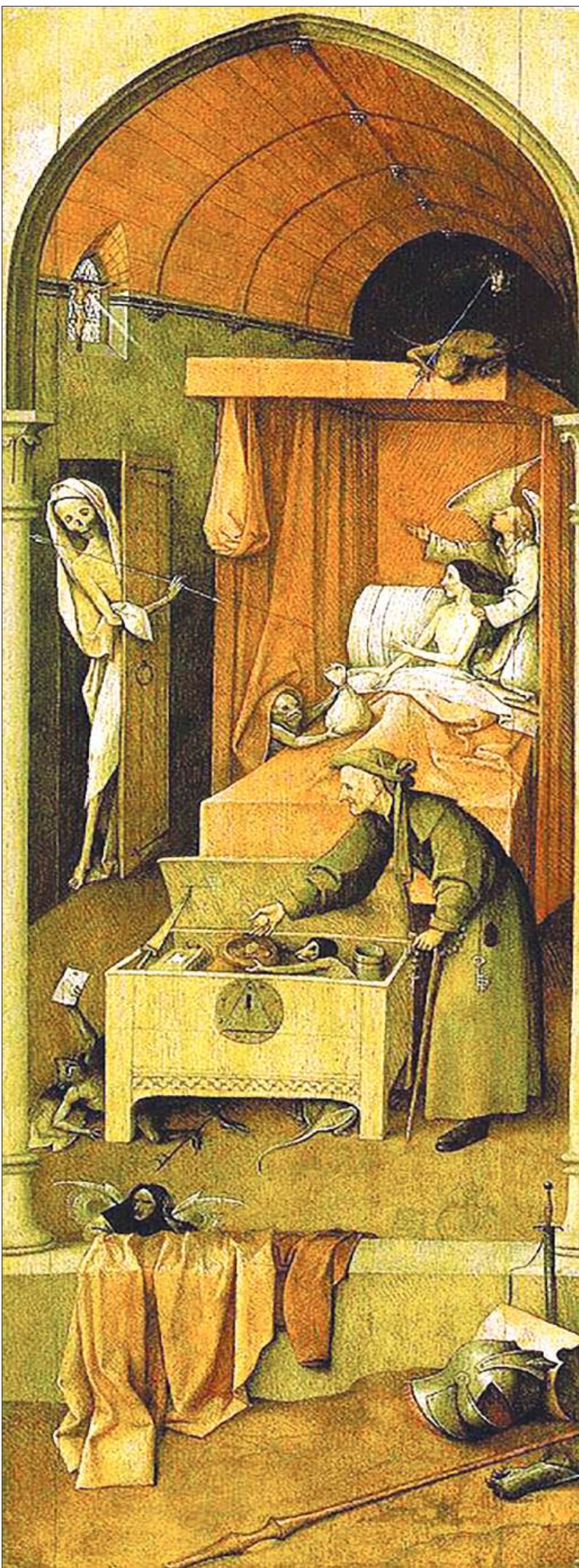
네 번째 탐식(Gluttony)에서 한 남자는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고, 다른 한 남자는 폭음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나태(Accidia)에서는 자신의 일을 내팽개친 채 잠을 잔다. 수녀가 그를 깨우려 하나 남성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정욕(Luxuria)은 호화로운 텐트 안팎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몇 쌍의 커플 주위로 이들의 행태를 풍자하는 어릿광대가 목동에게 엉덩이를 두들겨 맞는 장면을 위트 있게 배치하였다.

일곱 번째 자만심(Superbia)은 화려한 보닛을 쓴 여인이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장면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사탄은 사특한 웃음을 지으며 여인을 유혹한다. 그녀의 방은 금, 은, 도자기와 같은 호화스런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미술사학자 월터 S. 기브슨(Walter Gibson)에 의하면 보쉬의 원형 구성은 14세기 영국 프레스코 벽화에서도 볼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 세상에 만연한 죄를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아마 보쉬는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질타함과 동시에, 매사에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담는 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원형 구성, 곧 ‘창조주의 눈’을 연상시키는 구성이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중세 말 문학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시선’은 일부 플랑드르 화가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특히 니콜라스 폰 쿠사(Nicholas of Cusa)의



▲히에로니무스 보쉬, 죽음과 구두쇠, 1500년경.

『하나님의 비전(De Visione Dei, 1453)』에는 “하나님이시여, 오, 당신의 눈길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 당신을 사랑하는 만인에게 그 얼마

나 공정하시고 고결하신지요. 구세주, 하나님이지여, 당신을 저버리는 만인은 그 얼마나 두려울지요”라는 표현이 나온다.

니콜라스 쿠사는 “만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 누구도 그분의 눈길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마 보쉬는 이 문헌을 읽으며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보쉬는 인간의 삶을 동시대 기독교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죽음과 구두쇠〉(Death and the Miser, 1500년경)가 그런 작품 중 하나다. 〈죽음과 구두쇠〉는 15세기 널리 보급된 핸드북 『죽음의 기술(Ars moriendi)』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 책은 임종을 앞둔 사람이 죄의 허물을 벗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죽음과 구두쇠〉는 한 구두쇠가 침상에 누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을 표현한다. 그림 전면 고급스러운 의상과 화려한 장신구들(투구와 창, 검), 그리고 보화가 가득한 껍짝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주인공은 평생에 걸쳐 많은 재물을 모은 것 같다. 침상 발꿈치 쪽에 한 노인이 껍짝에 동전을 넣으려는 순간 생쥐가 이를 가로채고 있어, 보화를 쟁여둔다는 것의 무익함을 일깨워준다.

그 순간 ‘해골의 사신’이 찾아와 노인에게 화살을 쏘려 한다. 이때 천사가 노인을 부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작은 유리창 쪽에서 빛이 노인을 향한다. 그 빛은 자연광이 아니라 구세주의 참 빛이자 성령의 빛이다.

천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라’로 일러 준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순간조차 놓치지 않으려 한다. 사탄은 커튼 밑에서 노인을 돈물치로 유혹하고 있다. 천장에서도 마귀가 그 돈을 받으라고 재촉한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를 오가는 숨가쁜 순간을 드러마틱하게 묘출한 그림이 아닐 수 없다. 〈칠죄종〉이 욕망의 이끌림에 대한 경고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담고 있다면, 〈죽음과 구두쇠〉는 고민하는 노인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생과 지옥불의 갈림길에서 노인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궁극음을 자아낸다.

그의 화풍은 너무 적나라하고 그로테스크해서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 타락과 구원과 같은 근본 문제를 다룸으로써 단순한 감상용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서성록 명예교수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Hybrid

Blue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충성한 혜택

연말스페셜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리스프로그램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한인 메카닉 서비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당신은 왜 살며,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2027년 열릴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원장 이영훈 목사)에서 특별성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민족 복음화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일자·회차별로 전국의 대표적 기도운동 지도자와 현장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성회 이튿날 오전에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가 단에 올라 ‘사명’(요나 1: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소명의식의 부재”라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소명의식만 분명하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특별성회가 진행 중이다.

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명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동물처럼 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큰 일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이 있다”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2.8%의 소금 때문이다. 한

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적어도 15%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과연 썩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목사는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을 갔다. 결국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배에 있는 모든 짐은 바다에 던져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

명을 피하면 우리 인생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크든 작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일들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목사는 “사람은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하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 이름과 사명대로 살아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회는 매일 4회(새벽·오전·오후·저녁)의 예배로 구성되며, 한국교회의 중진 목회자부터 차세대 사역자까지 폭넓게 참여해

‘기도·회개·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민족적 기도 연합을 도모한다.

주요 강사로 는 이태희 목사(총재), 이영훈 목사(대표회장), 장항희 목사, 김대성 목사, 김병호 목사, 김문훈 목사, 정영균 목사, 강복렬 목사, 김원철 목사 등이다. 모든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이번 성회는 단순한 오산리기도원 집회를 넘어, 2027년 대성회를 향한 전국적 영적 플랫폼 구축의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8천만 민족의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 확산 △코로나로 문 닫은 1만 교회 회복운동 △불신자 100만인 전도라는 3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리기도원 성회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7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의 첫 대규모 연합성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분열·갈등의 시대 속 나라 비추는 등불 되길”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한국교회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축하메시지와 시상식, 만찬과 감사 순서로 진행되었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강기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으며, 명예회장 박승주 목사의 대표기도와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이후 군포제일교회 시온중앙단이 특별찬양을 했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설교를 전한 뒤 특별기도 순서가 진행됐다.

환영사에서 고경환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으로 세워진 이후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보호해 온 역사

와 사명을 강조했다. 고목사는 “한기총은 60여 회원교단과 21개 회원단체, 2만4천여 교회가 함께하며 설립 정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며 “56년의 역사는 한기총의 저력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도 한국교회를 위해 각 교단과 단체가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셨고, 다음세대를 독려하며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다”며 “2025년을 결산하고 2026년을 준비하며, 모든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끄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설교에서 고경환 목사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본문으로 ‘일개 나부랭이-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고목사는 ‘나부랭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며, 베드로가 예수님 앞

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던 장면을 언급했다. 그는 “주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고,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사역의 자리에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한기총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도 늘 나부랭이의 마음으로 회원들을 섬기겠다”며 “회원들이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는 한기총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이며, 이 꿈을 함께 이루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공동회장 임호성 목사가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해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가 한국교회와 한기총을 위해 ▲공동회장 서기원 목사가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가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예배는 증경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축하메시지 순서는 공동회장 박종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영상 시청과 공동회장 함동근 목사의 내빈 소개 후 축사와 장학금 전달, 격려사가 이어졌다. 장학금 전달 순서에서는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한국교회 교단 및 단체 추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와 국민의 삶이 안정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기총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국 선교 140주년을 언급하며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맞게 다음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탄의 계절에 한기총 한국교회의 밤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한기총이 나라를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했다.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는 “2025년은 고경환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한기총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난 해였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혜재단 이사장 유관재 목사는 “한기총이 과거의 잘못된 잔재를 벗고 한국교회에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장지동 기자



한기총 2025 한국교회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우밥술,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자산 13만불 넘어도 메디칼 받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저는 롬비치에 살고 있는데요 67세 입니다. 요즘 저소득 혜택 프로그램 메디칼 때문에 고민이 아주 큼니다. 저는 간경화에 당뇨가 심해서 먹는 약도 많고, 언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디칼이 저에게는 집 보다 더 중요 합니다. 한달에 메디칼 없으면 약값만 해도 6천불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냅니까. 집은 없어도 메디칼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재산에 상관 없이 그냥 인컴이 저소득이면 되서 지난 2년동안 저소득 메디칼을 받았는데 내년 부터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고 뉴스가 나왔잖습니까. 제가 소득은 적은데 은행에 돈이 좀 있습니다. 소셜 연금으로는 한달에 1158불이 나오지만 솔직히 그 돈으로 사는게 불가능합니다. 주식이나 5만불 정도 있고, 은행에 돈 있어도 된다고 해서 집을 2년 전에 팔아서 집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한 후에 남은 돈이 22만 불 정도가 은행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행에 있는 돈 22만불 가지고 약값이나 임원비로 쓰면 되지 뭐 그렇게 메디칼을 받으려고 노력하나 라고 욕할 지 모르지만, 메디칼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 돈은 어뉴이티에 넣으면 메디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뉴이티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문선영 선생님 꼭 좀 도와주세요.

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부터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을 위한 건강 보험인 메디칼 혜택을 받는 대상 기준이 크게 변화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 소득이 저소득 기준에만 들어간다면 모두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이제 자산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주식 보유액, 주택, 차량 등등을 심사에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싱글이시라면 재산이 13만달러를 넘으면 안되고요,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 재산이 19만 5천달러를 넘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 부터 도입되었던 자산규모나 채류신분에 상관 없이 소득만으로 메디칼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 자산 규모의 제한이 다시 시행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메디칼을 신청하는데 내가 가진 돈 전체가 자산으로 다 들어가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현재 집을 팔고 다시 구입하신 거주 주택 1채는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이 타시는 차량 1대도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뉴이티나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자산도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은행에 일단 22만불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식에 있는 돈 5만불이 뭐 더 자라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지만 일단 5만불로 계산하면 이것도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총 자산은 27만불이 됩니다. 선생님이 1인 가구일 때 13만불의 자산 기준에서 14만불이 초과가 되는데 이것도 주식이나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이야기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은행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안되고, 하지만 소셜 1158불로는 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이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니, 4%, 5%씩 꺼내 쓰신다고 해도 원금은 물론이고 돈은 조금씩 더 자라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은행에 있는 자산의 일부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4% 혹은 5%씩 꺼내 쓰시고 돈은 이자 받고 자라는 반면, 저소득의 자산 한도액도 해결하고, \$625불씩, 그래서 \$1783로 저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뉴이티에서는 평균 7~8% 이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충현선교교회 연말연시 예배 안내

예배안내

12월 25일 (목)	11:00AM	Christmas Family Worship
12월 31일 (수)	11:00PM	송구영신예배
1월 5-10일 (월-토)	5:20AM	특별새벽기도회 (헤브론 경건훈련)

충현선교교회 2026 신년 부흥 집회 1월 9일(금) - 11일(주일)

집회일정

1월 9일 (금)	7:30PM	'아들이란 명분(Adopted into a son)' (갈 4:4-7)
1월 10일 (토)	5:20AM	'다리놓는 사람들(Bridge Builders)' (골 1:5-6)
1월 10일 (토)	7:00PM	'교회로 말미암아(Through the Church)' (엡 3:8-13)
1월 11일 (주일)	1,2,3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Church that sounds good faith in God)' (살전 1:4-8)
	2:00PM	'여호와 의 등(Back shadow of God)' (출 33:16-23)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강사

백운영 선교사

GP선교회 국제대표(말레이시아)


충현선교교회
CHOONG HYUN MISSION CHURCH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문의: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www.choonghyun.org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영락교회 예배시간

Worship Schedule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청년 오후 1시 30분

특수부 예배 오전 11시

E.M(영어예배) 1st 9:00AM
2nd 11:00AM

주중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온교우 토요기도회 (토) 오전 6시

능력의 수요 강해 (수) 오전 10시

교육부 예배 오전 11시

· 신생아부 · 영아부 · 유아부 · 유년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부

YN한국학교 (주일) 오후 1시
(토) 오전 9시 30분

AWANA (주일) 오후 2시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기쁘다
크리스마스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오

이사야 30:18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AKUS 한미연합회 LA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남은 연말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장 : **김영구** 목사



사무총장 : **박세현** 목사

Tel. 310-404-6219, 323-404-3147
 1065 Lomita Bl. #312 Harbor City, CA 90710 sbgc6219@gmail.com